

John Oswalt 박사, Kings, 세션 2,

열왕기상 1:1-27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솔로몬을 칭찬하는 것인가, 아니면 비난하는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처럼 저자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고 싶어합니다. 좋은 작가는 독자에게 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작가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고 독자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 장에서 Mike는 내가 당신의 숙제를 확인할 것인지 묻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섹션의 개요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설명했다면 괜찮습니다.

이 질문의 주요 목적은 단순히 텍스트를 파헤치고 텍스트가 당신에게 말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는 1장과 2장이 왕좌를 확보하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 밤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여기서 꽤 불확실한 거래였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 두 장에서 솔로몬은 결국 모든 일을 맡게 될까요, 아니면 책임을 맡지 않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다음 3장에서는 어리석은 결정과 현명한 결정이라는 두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흔히들 3장은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의 시작 부분에 “잠깐만, 잠깐만”이라는 세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솔로몬 통치 초기에 내린 그 어리석은 결정이 40년 후의 결과를 못 박았다. 여러분 모두 오래된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1920년대 캔자스에는 틀에 박힌 길을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도로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음 40마일 동안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찍부터 자신의 틀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길을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가능한 한 큰 소리로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나요? 그것이 당신을 형성할 것이다. 그것이 당신을 형성할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결정, 어리석은 결정과 현명한 결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심은 현명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왕국을 부르겠습니다.

4장에는 그의 행정부,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그가 어떻게 국가를 조직했는지 등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학생들은 수년 동안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남자가 어떻게 천 명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글썄, 내 생각엔 그의 지혜가 특히 행정 분야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모든 면에서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5장부터 7장, 12장까지 실례하겠습니다. 거기 수치가 틀렸어요. 5, 1장부터 7장, 51장, 건축 공사, 5장, 7장부터 7장, 51장이어야 합니다. 우선 5장과 6장에는 그가 7년을 보낸 성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궁궐에 관한 아주 짧은 8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궁전이 분명히 사원 단지의 일부이고 모두 함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요약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 정말요? 그런 다음 약 40구절에 달하는 성전 기구가 성전 기구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8장은 여러 면에서 성전을 헌납하는 내용으로 책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최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 여호와께서 이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반응인데, 당신은 야훼가 그 성전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성전이 아니며, 성전도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는 그것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장, 10장부터 28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취입니다. 그는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는 일을 포함하여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솔로몬의 영광으로 마무리됩니다.

스바의 여왕이 그를 찾아와서 아직 절반도 말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고향 세바에서 들은 이야기는 실제 내용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최종적인 계산이 제시된다.

확실히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슬픈 구절 중 하나가 11장에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성경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을 희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셨고 그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영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영웅에 대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화잡지가 영웅의 실패로 영광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냥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 안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거 야. 그것은 삶의 복잡성과 현실에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묻고 싶은 것, 제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잠시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솔로몬의 구조, 솔로몬 이야기에 관한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모든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좋아요.

역대기 첫째 28장과 29장을 찾아보십시오. 솔로몬의 즉위에 관해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리고 여기 역대상 28장의 처음 7절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과 각 지파의 방백들과 왕을 섬기는 반장의 지휘관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과 왕자들의 모든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자들을 예루살렘에 모으니라, 궁궐 관리들과 용사들과 모든 노련한 용사들과 함께.

자, 이 회의에 누가 초대됐나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한 장교, 지도자, 국민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리더, 모든 부서장입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 내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여호와와 언약케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위하여 안식할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느니라 그리고 나는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너는 용사요 피를 흘렸음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온 집에서 나를 택하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나니 이는 그가 유다를 택하여 내 아버지 집 유다 집의 지도자로 삼았음이라. 내 아버지의 아들 중에서 그는 나를 기뻐하여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내 모든 아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많은 아들을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네 아들 솔로몬 이 내 집과 내 뜰을 건축할 것은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았음이니라 하시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오늘날처럼 계속해서 나의 계명과 법도를 굳게 지키면, 나는 그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그는 8장의 나머지 부분과 29장에 걸쳐 상당히 길게 계속됩니다. 이 구절은 다윗의 후계자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선택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 신에 의해. 이제 근동 전역에서 정상적인, 정상적인 계승이 유전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살아남은 가장 큰 아들인 빙고는 자동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뒤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열왕기서 첫 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의 상태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치매인 것 같죠? 그 사람은 늙었지요. 그는 몸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침대에서 얼어 죽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함께 자고 싶어하는 꽤 어린 소녀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노인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 꽤 분명해 보이지만 기억력이 상실된 노인입니다.

이제 아비삭은 다음 장에서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어떤 교훈을 얻나요? 제가 얻은 교훈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일로 인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일의 아름다움은 일어난 일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전보다 더 좋아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인류의 모든 결점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한계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선한 목적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도니야가 옵니다. 사무엘하 3장 2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이스르엘 아히노암 사람 암논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암논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는 자신의 누이, 이복 누이, 압살롬의 친누이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을 보면 아내마다 아들이 한 명씩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라고 말합니다. 음, 일부다처제가 여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읽어보니 성경 어디에도 일부다처제가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필요성이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약한 섹스다. 우리는 일찍 죽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죽인다. 그리고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음, 일부다처제.

하지만 그게 좋은 일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확실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암논이 잉태한 이복 누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의 경이로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고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종류의 글이 없습니다. 그는 이복 여동생을 원 하고 그녀를 데려간 다음 그녀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압살롬 다음은 누구죠? 아니, 킬리아브가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3장에서는 다니엘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언급 외에는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가 유아기에 사망했다고 의심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등장하지 않고 압살롬이 그 다음이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강간한 형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흥미 롭습니다. 데이비드는 국가 문제에 있어서 매우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가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매우 성공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봅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빙고, 짐을 꾸려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합니까? 그러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Karen과 나는 수년에 걸쳐 이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조직의 실패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할 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져 정말 추악해졌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빠,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그것이 그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그 비극적인 날이 그의 머리 위에 맴돌면서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지?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아 왔습니다. David가 그런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과 관련하여 필요한 급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 같은 것은 확실히 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잔치에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아마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암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종류의 배신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빗의 캐릭터는 앞쪽에 있고, 위쪽에 있고, 뒤편 아래에 숨겨져 있고, 그는 결코 위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암논이 죽어서 기쁘지만 압살롬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요압 역시 이 이야기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장군 요압은 이해합니다. 이런 일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은 현재 생존한 아들 중 장남입니다. 우리는 그를 요단 강 건너편 그술에 있는 그의 할아버지와 함께 남겨두고 어느 순간이라도 반란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를 집에 데려가야 해요.

그래서 요압이 이야기를 지어서 한 여인에게 전해 주었고, 그 여인이 다윗에게 말하자 다윗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결론은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습니다.

요압이 당신을 그렇게 부추겼습니까? 그러나 그는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해할 수 없었고, 배신하는 자와 화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압살롬이었습니다. 상처는 굶아가고 굶고 굶았고 압살롬은 마침내 병거와 그와 함께 달릴 군사 50명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챕터 어디에서나 보셨나요? 아도니아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왕세자로 선포하는 데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 일을 행하고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시다시피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좋아요. 말하자면 암논은 사라졌습니다.

킬리아브, 다니엘은 어떤 이유로든 사라졌습니다. 압살롬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가장 큰 아들은 누구일까요? 아도니아.

그러므로 그는 세상의 관습에 따라 자신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하기스의 어머니를 둔 아도니아, 이것은 1장 5절입니다. 우리는 다시 열왕기로 돌아왔습니다.

하기스의 어머니를 둔 아도니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래서 그는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50명을 데리고 자기보다 앞서 달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그의 아버지는 한 번도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저게 여기서 뭐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는 버릇없었어요.

예. 버릇없는 아이는 무엇을합니까? 그것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예.

특히 당신이 잘생겼다면요. 정확히. 그는 잘 생겼다.

아무도 그를 건너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너야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좌절시켜야 할까요? 내 말은, 그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데이빗은 결코 그 아이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방해해야 할까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경우, 좌절시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 괜찮은. 항상 자신만의 방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꿈을 꾸면 무리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만의 방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말로 그 길로 가고 싶나요? 그 길이 너를 데려갈 곳은 여기다, 아들아. 왜 그 길로 가고 싶나요? 제 아버지 중 한 분 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당신의 선택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선택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그의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결단력이 없어 보였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상황에 대한 아도니아의 이해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 아도니아가 자리야의 아들 총사령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하고 그들이 지지하였더라.

오, 진짜? 그들은 몇 년 전 데이비드와의 만남에 참석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제사장 사독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선지자 나단; 두 형제 시므이와 레히, 다윗의 특별 경호원은 아도니아와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아도니아는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게 어디였나요? Ein Rogel 근처의 Zohelath 돌에서. 글쎄요, 제가 수년 동안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저는 지도 제작학 학위를 취득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곳이 기드론 계곡입니다. 이곳은 힌놈 골짜기이고, 로마식 이름은 두로피아 골짜기이다. 이곳은 기드론 강과 두로 계곡 사이 능선에 있는 다윗의 성입니다.

여기가 성전이 세워질 곳입니다. 언약궤와 성막이 이 도시 어딘가에 있습니다. 오늘날 옛 성벽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다윗의 도시는 실제로 현대의 예루살렘 도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딘가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아직 거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 여기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여기 아래에는 로젤이 샘입니다. 그는 무엇을하고 있나요? 그는 여기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는 함께 파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도시 밖으로 반 마일, 4분의 3 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솔로몬을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데이비드가 잊어버렸기를 바라며, 미친 아버지에게 기정사실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끝났다. 솔로몬의 왕위에 오른 이야기에는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가 궁전을 장악한 결과 왕위에 오르는 원작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장식하는 연대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썄요, 미안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저는 역대기와 킹스가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킹스가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은 아도니야가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모든 일을 겪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는 기억하고 있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활하게 그 일을 하고 완료된 거래로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압은 장군이다. 요압은 다시 성경에 나오는 놀랍고 놀라운 인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압은 30년 동안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더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가 가족과 함께 있을 때를 미리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를 죽이지 마세요. 데이빗, 그 사람은 한순간에 널 죽일 거야.

그를 죽이지 마세요. 그를 죽이지 마세요. 그분을 석방시켜 주시 오.

요압은 그를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죽여.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다윗은 왕좌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고 아비아달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여러분에게는 두 개의 가계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엘리에셀의 계열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계열입니다. 그리고 어쩌다보니 이다말 가문이 실로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Abiathar는 Ithamar 가족 출신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성막을 파괴하고 법궤를 도적질한 후에 다윗이 그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다윗은 그를 들어 올려 예루살렘 장막에서 다시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들은 그 관리들 모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전적으로. 전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왜 그것을 주는 걸까요? 전통.

좋아요. 좋아요. 응.

그는 큰 아들입니다. 그는 그것을 가져야만 합니다. 괜찮은.

괜찮은.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에 대한 다른 생각은 없나요? 그들은 죽기를 원하지 않는데 솔로몬은 왜 그들을 죽였을까요? 압살롬의 죽음에 관한 내용인가요? 어 허. 어 허.

어 허. 나는 특히 요압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윗이 요압이 한 일을 용서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Abiathar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내 시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솔로몬이 11번째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10번째 아들인데 아쉽게도 10번째 아들이군요. 이 두 사람이 솔로몬에게 등을 돌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밋세바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이 여자를 찬탈자로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아들을 내 시체의 왕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솔로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솔로몬을 선택하셨을까요? 10번째 아들이예요. 그는 간음한 여자, 간음한 여자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 예. 응.

응. 응. 게다가,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악의 혼란을 가져가시고 구속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뜻밖의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왕국의 처음 세 어머니는 모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없는 여성은 제로였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들은 무가치했습니다. 누군가는 영국이 그런 제국을 건설한 이유가 둘째 아들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기꾼이었지만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은 쓸모없다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엔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

오, 하느님, 제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내 남은 날 동안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관계의 아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왜 이 시점에서 배에서 뛰어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다윗이 자신의 소식을 알린 관리 집단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은 아도니야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세상의 관점에서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면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큰 아들은 잘생기고 능력도 있어요.

응, 그렇게 하자. 아니, 아니. 그래서 아도니야의 마음과 그의 지지자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선택했지만 나단을 잊어버렸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당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그는 솔로몬과 함께 있어요.

다시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입니다. 간음으로 얻은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밋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니라.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리고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여호와와 사랑을 받는 자)라 불렀습니다. 여호와 때문입니다. 그래서 Nathan은 처음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람입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나단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Nathan은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와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나단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는 하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분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하시는 데 신실하십니다. 나단이 밋세바와 그 아이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는 사랑받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는 네이선(Nathan)은 놀라운 사람이다. 이제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책임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Nathan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장군은 이 잘생긴 젊은 강탈자를 손에 넣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 가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갔다. 나단에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입을 다물고 군종과 함께 가십시오.

바람이 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Nathan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밋세바와 관련이 있습니까? 11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밋세바에게 묻습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 다윗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도니야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는 솔로몬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일단 그가 왕좌에 오르면 사람들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죽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Nathan은 당신과 당신의 생명, 그리고 당신 아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고하여 이르기를 내 주 왕이여 당신이 당신의 종 나에게 맹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라 잠깐만요.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나의 주 왕이시여, 이 일을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단은 왜 밋세바를 여기에 끌어들이고, 왜 그녀에게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걸까요? 예? 내 생각엔 당신이 그것을 얻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보세요. 데이비드에게 그녀는 거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데이빗, 제 생각에 당신은 분명히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여기 사진이 꽤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는 한 노인의 사진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만약 네이단이 거기에 가서 '데이비드, 5년 전에 당신은 솔로몬이 당신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내 생각엔 그 노인이 '아, 정말요?'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랬나요? 아, 내 생각엔 그가 밋세바를 연루시킨 이유는 다윗이 거부할 수 없는 그녀였기 때문이고, 그의

상황에서는 내가 5, 6년 전에 관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했던 말이다. 나는 그것이 그의 치매의 안개를 헤쳐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 그건 추측입니다.

당신은 맞았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저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를 참여시키나요? 왜 그녀를 이 일에 끌어들이고,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위대한 공식 발표가 아닌 다윗과 밋세바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 삼을까요? 14절,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하신 것에 내 말을 덧붙이리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왕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는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청합니다. 주님의 종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의 모든 눈이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을 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왕께 주목하고 있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실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그가 말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이르렀다.

나단에게 선지자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 앞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노년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교회 예배에 가면 웃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25분만 서자고 합니다. 글썄요, 성경에 나오는 경건의 태도는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교회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Nathan은 자신이 말한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저는 이것이 25절 후반, 아니 26절 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군대 장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곧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 이 일을 행하심이 어찌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을 자가 누구인지를 종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행하심이니이까 좋습니다. Danny가 언급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단이 나단과 밋세바를 조종했습니까? 그들이 데이비드를 조종했나요?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원시적인 조작입니다. 조작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괜찮은. 현명한 것과 교활한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중 하나는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또 뭐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대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맹세를 상기시켰나요? 예.

이것은 당신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학교 교수로 지내며 헛수고로 보낸 인생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꽤 많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난 괜찮아. 내 주장이 옳다.

그러니까 아, 정확히는. 정확하게. 난 괜찮아.

내 주장이 옳다. 따라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됩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좋아요.

좋아요. 괜찮은. 자기 자신이 초점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따라서 지혜와 조작의 차이점 중 하나는 동기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요?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틀렸어요.

그리고 내 말이 맞아요. 그리고 내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학생들은 종종 더 이상은 아니지만 학업 환경을 상아탑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상아탑은 아주 심하게 더럽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벌어진 가장 악랄한 싸움 중 일부가 학계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옳고 내 길을 원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athan이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밋세바를 이 일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빗의 관심을 끌기 위해. 왜? 글썄요, 흥미롭게도 그는 결코 내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은 밋세바와 솔로몬의 생명만큼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주님 앞에서 이것을 말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거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위험은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자기 성찰이 계속되어야합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분은 자신의 성품과 본성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거짓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서리 절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경건한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방법. 모든 당사자에게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걸으려는 현명한 길과 교활한 길은 많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멸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건한 지혜의 한 예인 것 같습니다. 영리하게,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을지 파악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나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책의 다른 부분을 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이 특별한 시작은 책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어디로 갈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실감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파우더 퍼프 물건을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현실을 설탕코팅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좋은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을 때에도 말입니다. 주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조작자가 되지 않도록, 제가 옳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강요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열정적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길을 원하고 기꺼이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동기가 몹시 뒤엉켜 있음을 거듭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큼 우리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일에서 경건한 남자와 여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